
제11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결과 보고

2023. 11.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

〈 순 서 〉

I. 행사 개요	1
II. 개최 성과	3
III. 향후 계획	4

[붙임 1] 보도자료

[붙임 2] 현장사진

I. 행사 개요

1 개최 배경

-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뒷받침한 우리 법제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법제를 소개하고 상호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 마련
- 그간 수시적·양자중심이었던 법제교류를 상시적·다자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심점으로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축 논의

2 일시·장소 및 참석자

* 공동주최: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 (일시) 2023. 10. 27. (금) 14:00 ~ 18:00 (이후 만찬)
- (장소) 여의도 글래드
- (참석자) 차장님(대참) 및 아시아 법제 교류 관련 국내외 연사

3 주제 및 개최 방식

- (주제) 법제로 하나되는 아시아, 상생발전을 위한 법제교류협력방안
- (개최 방식) 코로나19 완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이므로 오프라인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유튜브) 생중계는 병행
- * 사정상 현장 참석이 어려웠던 처장님, 태국 내각사무처 장관은 영상으로 참석



4 회의 구성 및 연사

- 개회식과 기조연설, 세션별 발표, 종합토론으로 구성
- 회의 직전 VIP 환담, 회의 직후 만찬 개최

시 간	내 용	연 사
13:40~13:50 ('10)	VIP 환담	
14:00~14:05 ('5)	개회사(영상)	처장님 (영상)
14:05~14:10 ('5)	환영사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14:10~14:15 ('5)	국내축사	박종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총장
14:15~14:20 ('5)	해외축사	Suharso Monoarfa 인니 국가개발계획부 장관
14:20~14:25 ('5)	해외축사(영상)	Pakorn Nilprapunt 태국 내각사무처 장관
14:25~14:40 ('15)	기조연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14:40~15:00 ('20)	기념촬영 및 휴식	
(세션1) 아시아 각국의 양자 법제교류 경험 공유 및 개선방안 사회 :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15:00~15:20 ('20)	법령정보시스템	이영진 법제처 데이터혁신팀장
15:20~15:40 ('20)	해외연사 발표	Erick Mario 인니 내각사무처 과장
15:40~16:00 ('20)	해외연사 발표	Amarsanaa Batbold 몽골 국립대학 법과대학 학장
16:00~16:30 ('30)	종합토론	박정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Tien-Duc Nguyen 베트남 국가와법연구소 연구원
16:30~16:40 ('10)	휴 식	
(세션2) 아시아 법제분야 상생발전을 위한 다자교류 및 협의체 구축 필요성 사회 :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16:40~17:00 ('20)	발표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7:00~17:20 ('20)	해외연사 발표	Murakami Masako 나고야대학 법학대학원 교수
17:20~17:50 ('30)	종합토론	김황용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
		Ha Thi Phuong Thao 베트남 법무부 법제담당관
		Chittahasone Douangdy 라오스 법무부 국제협력과장
17:50~18:00 ('10)	정리 및 폐회	
18:00~20:00 ('120)	만찬	

II. 개최 성과

1 코로나19 완화 이후 성공적인 오프라인 개최

-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추진되어 온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원활히 개최
 - 아시아 지역에서 법제 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회의로서 다시 자리매김
- 회의 개최 10주년을 맞이하여,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비롯한 다자협력의 필요성을 주제로 삼고 논의한 것은 시의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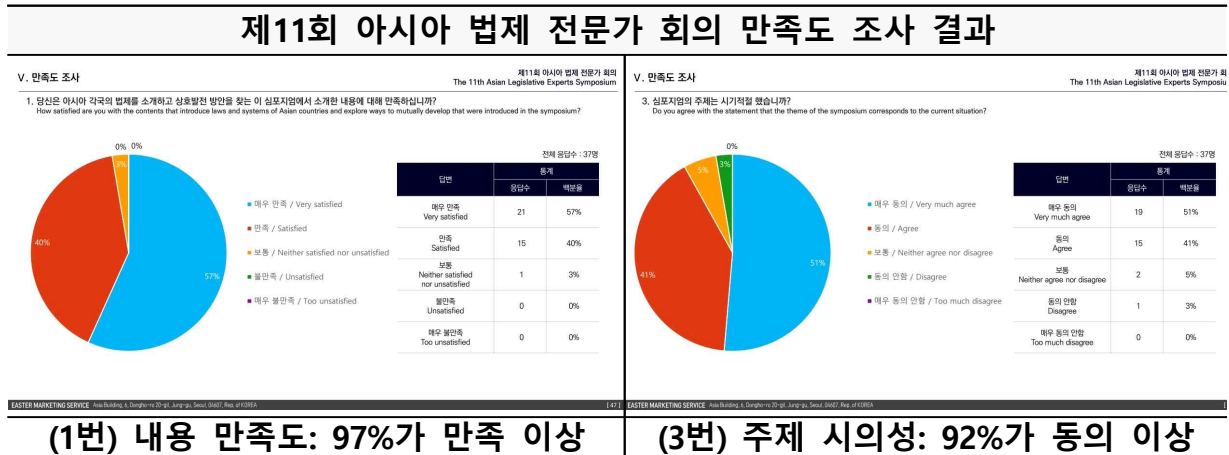


2 다양한 구성의 연사 섭외

- 아시아 다자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법제처, 법제연과 교류가 활발했던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라오스, 몽골 등 다양한 국가 섭외
 - 특히 인도네시아, 태국 등 중요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기관장급(장관) 인사 섭외를 통해 축사를 진행함으로써 관심도 주목
- 법제협력을 주제로 논의하면서도 법제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다자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산림,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협력기구·전문가 섭외(AFoCo, AFACI 등)

③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 대한 높은 만족도

- 회의를 통해 논의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양자협력 및 다자 교류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대부분의 참석자가 만족 표시
- 다만 회의가 다소 장시간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는 바, 차후 회의는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



④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

- (초청장) 우편 초청장(161건) 및 온라인 초청장(5,511건) 발송 및 전달
- 주한 외국공관, 주요 국제기구, 법제 관련 기관, 국내 대학 등
- (언론) 신문 지면광고, 처장님 기고문 게재(10.22, 코리아중앙데일리), 행사 당일 보도자료 배포(10.27)
-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9.12~), 카드뉴스 제작·홍보, 온라인 플랫폼에 행사 개최 홍보 진행(총 39개소)

IV. 향후 계획

-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주제 선정: ' 24. 2월
- 아시아 법제 현안 연구용역 발주 및 착수: ' 24. 3월
-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행사대행용역 발주 및 착수: ' 24. 4~5월
-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 24. 9월 또는 10월(예정)



법제처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0. 27.(금) 배포 2023. 10. 27.(금) 14:00

법제처, ‘법제로 하나되는 아시아’를 위한 상생발전 방안 논의

- 27일, 제11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 27일(금) 오후 2시 글래드 여의도(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법제로 하나되는 아시아, 상생발전을 위한 법제교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11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6개국(라오스,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의 국제 교류 및 법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3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영상으로 송출된 개회사에서 “그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법제기관 간 양자 중심의 교류를 넘어서 다자 차원의 교류로 나아가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제처는 아시아 지역의 법제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상시적이고 안정적으로 교류·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라며,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는 미래 법제에 대한 공동연구, 법제행정 발전 방안 논의, 법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하우 공유 등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이어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이 환영사에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박종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총장, 수하르소 모노아르파(Suharso Monoarfa)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장관, 파콘 닐프라폰트(Pakorn Nilprapunt) 태국 내각사무처 장관이 축사에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기원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

정책대학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아시아의 부(Wealth of Asia)를 위한 법제의 역할을 강조했다.

회의는 제1부와 제2부로 진행되었다. 제1부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양자 법제 교류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미얀마에 법령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한 사업을 소개하며 아쉬운 점과 보완할 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몽골 국립대학 법과대학에서도 각각 양자 교류 경험을 나누었으며, 이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부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법제 분야 상생발전을 위한 다자 교류 및 협의체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뒤이어 일본 나고야대학 아시아법제교류센터에서 법제 분야의 다자 교류 경험을 발표했다. 이어서 한-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를 운영 중인 대한민국 농촌진흥청과 베트남 법무부, 라오스 법무부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법제처는 2013년부터 아시아 국가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아시아의 공동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으로 법제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948년부터 2023년까지 대한민국 법제 발전의 역사를 정리한 『대한민국 법제발전사』를 영문으로 발간하여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침해 온 법제 경험을 아시아 국가들과 보다 실질적으로 공유했다.

붙임. 제11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프로그램

< 역대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

- (제1회) 법제 교류 현주소와 나아갈 길('13. 11월)
- (제2회)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 법제 현황과 발전방향('14. 10월)
- (제3회)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발전 전략('15. 11월)
- (제4회) ASEAN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제정비 전략('16. 11월)
- (제5회)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연구('17. 11월)
- (제6회)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18. 10월)
- (제7회)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19. 10월)
- (제8회)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20. 11월)
- (제9회) 아시아 각국의 법제 행정 현황과 교류협력 방안('21. 10월)
- (제10회)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 방안('22. 9월)

Release date October 27, 2023 (Fri.) Distribution date October 27, 2023 (Fri.) 10:00 a.m.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Discussing Mutual Development for “Asia United in Laws and Systems”

- On October 27, hosting the 11th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OLEG) (Minister Lee Wan-kyu) held the 11th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 under the theme of “Asia United in Laws and Systems, Legislative Exchange and Cooperation for Mutual Development” at Glad Yeoido (located in Yeongdeungpo-gu, Seoul) at 2 p.m. on October 27 (Friday).

In the post-COVID-19 era, the symposium was held in a face-to-face manner for the first time in three years after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Expert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legislation from six Asian countries (Laos, Mongolia, Vietnam, Indonesia, Japan, Thailand), including Korea, attended it.

“This symposium will become a venue to come up with measures to establish a multilateral body, moving beyond the bilateral cooperation that has usually been carried out in the Asian region,” Minister Lee Wan-kyu said in his opening remarks delivered via video.

“We are exploring ways to lay the foundation for Asian legislative organization to exchange and cooperate on a regular and stable basis.” Additionally, he presente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consultative group of Asian legislative bodies and expressed expectations that the consultative group would provide an opportunity to perform a joint research on future laws and

systems, discuss development measures of legislative administration, and share know-hows fo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legal information system.

Han Yeong-soo, President of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expressed his appreciation to all the participants in his welcome remarks. And Park Chong-ho, Executive Director of the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Suharso Monoarfa, Minister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of Indonesia, and Pakorn Nilprapunt, Secretary-General of Office of the Council of State of Thailand, expressed hope for the success of this symposium and Asia's legislative development in their congratulatory speeches. You Jong-il, Dean of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highlighted the role of laws and systems for the wealth of Asia.

This event was divided into 2 sessions. In session 1, experts from Asian countries shared experiences in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legislation and talked about measures to improve it.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ntroduced the project that supported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information system in Myanmar and gave opinions on matters to be improved. The Cabinet Secretaria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School of Law of the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shared their experiences in bilateral cooperation and there was a discussion on this issue.

In session 2,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shared the research result on the necessity of promoting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establishing a multilateral body for mutual development in the field of legislation. And the Center for Asian Legal Exchange of Nagoya University gave a presentation on multilateral cooperation in legislation.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at is operating the Asian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the Ministry of Justice of Vietnam, and the Ministry of Justice of Laos also exchanged their opinions on multilateral cooperation.

Since 2013, MOLEG has hosted ALES every year to ensure mutual development of Asia and to enhance legislative cooperation by responding preemptively to common pending issues Asian countries are dealing with and discussing development measures. In particular, this year, we published the English version of the “History of Laws and Systems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1948 to 2023 to share our experience in making laws and regulations that have supported Korea’s development.

< History of “ALES” >

- (1st) Current Status of and Future Direction for Legislative Cooperation (November, 2013)
- (2nd)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of IT-related Laws and Systems of Korea and Eurasia (October, 2014)
- (3rd) Legislation on Urban Development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Asian Countries (November, 2015)
- (4th) Legislative Modification Strategies for Enhancing Efficiency of ASEAN Transportation Systems (November, 2016)
- (5th) Legislative Study on Safety Management to Respond to Natural Disaster (focusing on Indonesia) (November, 2017)
- (6th) Strategies for Modifying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and System: Promoting Public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October, 2018)
- (7th) Legislative Modification Strategies for Smart City (October, 2019)
- (8th) Legislations on Infectious Diseases and Cooperative Measures of Asian Countries in the Post COVID-19 Era (November, 2020)
- (9th) Legislative Administration of Each Asian Country and Cooperation Measures (October, 2021)
- (10th) Digital Era – Legal Information System of Each Asian Country and Development Measures (September, 2022)

Attachment: The 11th ALES Program

Division in charge	Bureau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Legislative Exchange and Cooperation Division	Person responsible	Director	Park Ji-eun	(044-200-6825)
		Person in charge	Deputy Director	Lee Da-eun	(044-200-6827)

붙임 2 현장 사진

○ 개회식



○ 세션1



○ 세션2



○ 만찬

